



자연이 숨쉬는 아라리의 고장, 정선

강
목
자유기고가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정선군(旌善郡)은 강원도의 동남쪽 산간 지대에 자리 잡은 오지의 고장이다. 태백정맥의 단전에 해당하는 정선(旌善)은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남한강 상류의 지류들이 골짜기마다 흐르고 있어 계곡에만 다소 길다란 경지가 있을 뿐이다. 정선은 면적의 약 87%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 속의 골짜기마다 넘치는 물이 있어 여기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히 산과 물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조선중기의 인문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地)』에서 “무릇 나흘 동안 길을 걸었는데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었다.”고 정선 땅의 가파른 산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선군의 산세를 살펴보면 해발 1,000m 이상의 산이 많다. 동쪽으로는 중봉산(1,284m)·문래산(1,082m)이 있고, 서쪽으로는 가리왕산(1,561m)·청옥산(1,256m),

남쪽에는 예미산(989m)·백운산(1,426m), 함백산(1,573m), 북쪽에는 노추산(1,332m)·석병산(1,055m)·박지산(1,394m), 중앙부에 민둥산(974m)·고양산(1,151m) 등이 있다.

어느 곳이거나 물을 끼고 들이 이루어진 곳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듯이 이 군의 그런 곳에도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임계천과 구절천이 아우러지는 냇가의 들판에 고인돌 다섯 개가 남아 있고 그 물줄기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대천과 만나는 곳, 곧 북면 남평리의 냇가 들판에 고인돌 세 개가 남아 있다. 또, 신동읍 덕천리 강가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정선읍은 뒤의 비봉산을 진산으로 하고 조양강이 남서쪽으로 흘러 신동읍을 지나 영월땅으로 들어간다. 한때 영월댐 건설 여부로 문제가 되었던 동강은 영월에서 불